

축구·배구

8

2019년 11월 15·16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김학범 감독

〈U-22 대표팀〉

사우디 제압한 김학범호 두바이컵 기분 좋은 첫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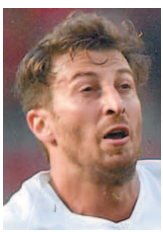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이 2019 두바이컵 친선경기에서 기분 좋은 첫 승을 신고했다.

한국은 13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펼쳐진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회 1차전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후반 10분 이동준(부산 아이파크)이 선제골을 터트렸고 후반 32분 조규성(FC안양)이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후반 초반 정승원(대구FC)이 얻어낸 페널티킥(PK) 찬스를 실축한 이동준이 결승골을 직접 책임지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내년 초 2020도쿄올림픽 지역예선을 겸해 태국에서 개최될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의 전조전 격인 이번 대회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에 바레인, UAE,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U-22 대표팀이 출전한다. 한국은 15일 바레인과 대회 2차전을 갖는다.

남정현 기자

상대 감독 밀친 독일 선수 ‘7경기 출장정지’ 중징계



아브라함

경기 도중 상대 감독을 밀친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선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독일축구협회는(DFB)는 14일(한국시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주장 다비드 아브라함

(33·아르헨티나)에게 7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만5000유로(약 3200만 원)를 부과했다. 이 징계는 곧장 적용됐다. 논란이 된 사건은 11일 프라이부르크 원정 경기에서 일어났다. 0-1로 밀리던 후반, 공을 잡기 위해 상대 벤치로 향하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프라이부르크 크리스티안 슈트라이히 감독을 어깨로 밀쳐 넘어뜨렸다. 돌발 행동 직후 양쪽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충돌했고, 아브라함은 즉시 퇴장당했다. 또 충돌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목을 잡고 얼굴을 밀친 장면이 비디오판독(VAR)으로 확인된 프라이부르크 빈첸초 그리포도 DFB로부터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프랑크푸르트와 프라이부르크 구단은 DFB를 통해 선수 징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레바논 원정 마친 태극전사들…브라질 평가전 찍고 E-1 챔피언십으로

A매치 시리즈…벤투호 “바쁘다 바빠”

‘혼돈의 베이루트’ 레바논전 마무리
19일 UAE서 강호 브라질과 평가전
12월 E-1 챔피언십 국내파 총출동

레바논과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원정 4차전(14일)을 마친 축구국가대표팀은 곧바로 11월 A매치 원정 시리즈를 위해 베이스캠프를 차린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이동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을 비롯한 선수단이 베이루트에 체류한 시간은 1박 2일이었다. 경기 전날 그라운드 적응을 위해 이뤄지는 공식 훈련 대신 아부다비에서 최종 담금질을 한 뒤 전세기로 베이루트에 입성한 대표팀은 회복훈련도 아부다비에서 갖는다.

대한축구협회는 훈련효과 극대화, 피

로누적 최소화를 위해 아부다비~베이루트 구간의 전세기를 확보했다. 베이루트로 사전 답사를 다녀온 대표팀 스태프로부터 뒤늦은 정세와 낙후된 인프라를 보고 받은 벤투 감독은 레바논전을 제외한 일체의 준비를 아부다비에서 진행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했다.

레바논은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다. 3시간 반 가량의 비행 끝에 베이루트에 도착해 숙소로 이동한 선수단이 처음 지켜본 것도 불타는 페타이어가 도로를 가로막은 모습이었다. ‘외출 자제’ 지침이 내려지고 10월 평양 남북전 이후 또 다시 무관중 경기로 열렸다. 벤투 감독과 전날 공식기자회견에 나선 레바논의 리비우 치오보타리우 감독도 “우리가 한 국가라도 훈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동조의 뜻을 전했다.

레바논 원정을 끝낸 태극전사들은 이제 19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

에서 남미축구 ‘전통의 강호’ 브라질과 역대급 친선경기를 준비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다시 손발을 맞춘 뒤 최상의 경기력으로 임한다는 의지다.

대표팀은 12월에도 쉬지 않는다.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기다리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공식 A매치 기간이 아닌 탓에 유럽·중동 등 해외파는 불참하지만 K리그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 중인 동아시아인 리거들은 출전이 가능하다.

2년 주기의 이번 대회는 부산에서 진행되는 데 일본, 중국, 홍콩이 출전해 자웅을 겨룬다. 특히 대회 최종일인 12월 18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한일전이 예정됐다. 벤투 감독은 12월 5일 울산에서 강화훈련을 시작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14일 레바논 원정을 마친 축구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UAE)로 이동했다. 이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시선은 19일 마주할 ‘전통의 강호’ 브라질에 고정됐다. 베이루트(UAE) | 뉴스

‘역대급 평가전’ 브라질전…얻는 게 많을 대한민국

남장현의 피버피치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4일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이 11월 19일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대결은 2013년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 이후 6년 만으로 역대 전적은 1승4패로 우리가 열세다.

통산 11회,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노리는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 벤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이후 성사된 최고의 매치 업이라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쏠린다.

월드컵을 5회 제패한 브라질과 첫 접착이 이뤄진 건 지난 연말이었다. 수년 전부터 교감은 해왔으나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영국 에이전시와 “연간 10차례 이상 전 세계를 돌며 프로모션 매치를 펼친다”는 계약을 맺은 브라질은 그간 지구촌 투어를 꾸준히 진행했다.

그런데 11월이 고민이었다. 오랜 라이벌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6일 남미 최강전을 갖기로 한 가운데 브라질은 한 경기가 더 필요했다. 중동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러브콜을 보냈다.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경기할 수 없는 노릇. 브라질도 명분이 필요했다. 자신들도 득이 돼야 했다.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은 월드컵 단골 손님인 한국에 협상을 집중하기 시작했

다. 협회의 ‘국제 통’ 전한진 사무총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에이전시의 방향이) 우리로 거의 쏠린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큰 틀의 합의는 마쳤지만 고민은 계속됐다. 장소다. 협회는 홈경기를 원했다. 축구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레바논과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원정 4차전(14일·베이루트)을 마친 태극전사들의 이동이다. 대표팀 이원화 등도 고민했지만 ‘반쪽짜리’ 경기는 무의미했다.

리야드, 베이루트와 가까운 아부다비로 조율을 끝낸 뒤 협회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대개의 평가전은 대전료, 항공 및 체류비를 조건으로 상대를 초청해 이뤄지는데 이번 경기는 달랐다. 브라질은 통 큰 양

최고 팀과 경기…대표팀 경쟁력 향상
협회도 국내 중계권 확보 ‘남는 장사’

보를 했다. 국내 중계권이다. 경기장 A보드와 입장수익, 해외 중계권 등은 자신들이 챙기는 조건이었다.

그래도 대단한 성과였다. 현대축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중계권이다. 방송관계자는 이 경기에서 협회에 돌아갈 수익을 15억 원으로 전망한다. A매치 중계권 규모는 상대, 중계시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브라질전은 A레벨에 포함된다. 원정 2연전을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충분히 남는다.

소득은 또 있다. 태극전사들의 경쟁력 확인이다. 세계 정상권과 겨루면서 국제경험치도 크게 오를 수 있다. 협회의 성공적인 마케팅부터 대표팀의 실력 향상까지 이래저래 많은 걸 얻은 브라질전이다.

yoshike3@donga.com

외인 수난 시대…토종 전성 시대

외인 부상·부진…국내 선수 비중 ↑
박철우 득점 1위…조재성 서브 1위



올 시즌 남자프로배구는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각 팀의 주포 역할을 맡아 뛰아와 부진해 제몫을 해주지 못하는 까닭이다.

팀 사정에 따라 많게는 50% 이상의 공격 점유율을 책임지는 외국인 선수들은 득점 및 서브 부문에서 상위권에 대거 포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5시즌만 돌아봐도 득점 상위 5위에 국내 선수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5위가 모조리 외국인 선수들의 자리였다. 국내 선수들이 좀 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브 부문에서도 1위의 영예는 언제나 용병이 가져갔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부상, 부진으로 신음하는 외국인 선수가 속출하면서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외국인 선수가 정상 출격하는 팀이 7개 구단 중 대한항공(비에나), 우리카드(벨리페), 한국전력(가빈) 정도다. 현대캐피탈은 외인 교체 과정에 있고, 중앙리를 다친 OK저축은행 레오는 코트 복귀를 준비 중이다. 정상 컨디션이 아닌 삼성화재 산탄젤로는 대체로 원 입 존을 지키고, KB손해보험 브람도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다.



OK저축은행 조재성

아쩔 수 없이 국내 선수들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면서 순위 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삼성화재에서 고군분투하는 베테랑 박철우가 13일까지 득점 1위(216점)에 올라있고 서브 부문에선 레오의 부상 공백 때우는 OK저축은행 조재성이 1위(경기당 평균 0.655개)를 차지하고 있다. 서브 2위는 8일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서브 성공 10개를 기록한 한국전력 김인혁(경기당 평균 0.625)이다. 이외에도 공격성공률 1위에 정지석(대한항공·59.48%), 오픈 공격 1·2위에 박철우, 정지석 등이 자리해 있다.

득점과 서브 부문에서 국내 선수가 1위를 차지한 시즌은 V리그가 출범한 2005년과 2005~2006시즌뿐이다. 당시 이경수(현 목포대 감독)가 두 시즌 연속 득점, 서브 동반 1위의 영광을 쏠아 담았다. 외인 수난 시대 속 색다르게 작성된 순위 표는 V리그 팬들의 또 다른 재미가 되고 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삼성화재 박철우는 13일까지 V리그 남자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 선수가 득점 1위를 기록한 시즌은 V리그 첫 시즌인 2005년과 2005~2006시즌 단 두 번뿐이다. 스포츠조선 DB